

고창 해리면 김혜경씨, 백미 80kg 기부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김혜경씨가 귀촌후 첫 수확한 햅쌀 80kg를 해리면사무소 기탁했다.

그는 2021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으로써 군과 인연을 맺은후 2022년 하반기에 해리면에 귀농하여 500평을 경작한 첫 해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함을 실천했다.

또한 김씨는 해리면 생활개선협의회 50번째 회원으로 활동하며 '해리면민의 날'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김혜경씨는 "기탁한 쌀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남군 면장은 "단순한 쌀 기탁이 아니라 해리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받았다"며 "기탁자의 뜻에 따라 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창=안병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3-11-22 13면

<http://sjbnews.com/798895>